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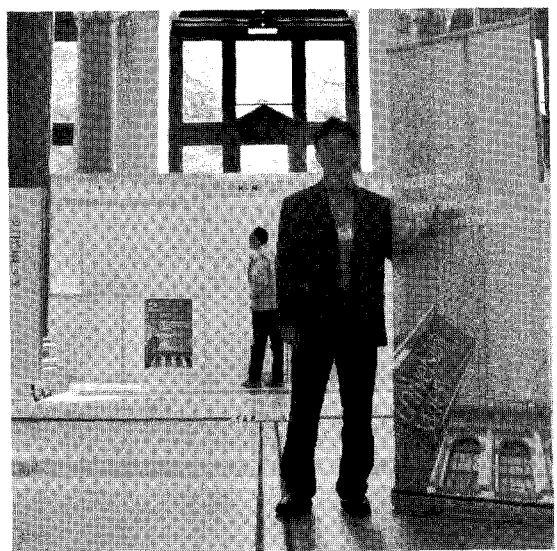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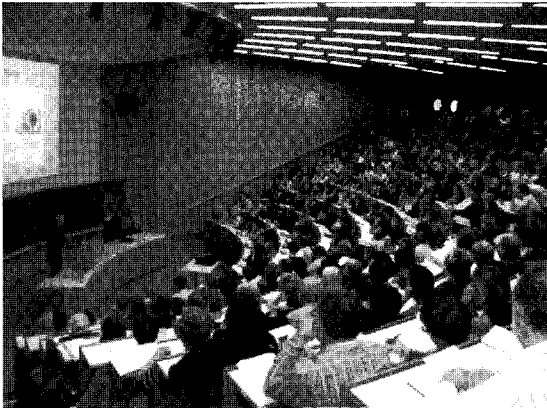
European Conference on Educational Research 2009 참가기

양정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유럽이 통합된 이후 각 나라의 학자들의 교류도 유럽 통합에 맞추어 더욱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이번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에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2009 유럽 교육학회(Europ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EERA)가 주최한 학술대회(<http://www.eera-ecer.eu/ecer/ecer-2009-vienna/>)에서 수많은 학자와 예비학자들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모인 것을 보고 유럽이 점차 하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EERA는 23개 유럽국가와 지역 교육학회가 연합해서 만든 학회이다. 이번 회의는 “Theory and Evidence in European Educational Research”란 주제로 초·중등 교육현안을 포함해서 대학동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현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주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불고있는 “증거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교육의 질 확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증거에 기초한 교수방법”과 같이 단순한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교육

학에 있어서 변화를 강조하는 교육연구와 실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EU,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관들이 교육지표의 수집에 관심을 보이면서 적절한 자료에 기반한 적합한 교육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유럽 학자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육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유럽대학도 다른 선진국의 변화추세에 맞춰 시장의 논리가 도입되면서 대학 간의 교수 이동, 비인기 학과의 폐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이론개발에 집중해 왔던 대학들이 이러한 증거, 자료를 중시하는 현실적인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세계적인 흐름에 유럽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번에 특별히 “유럽 교육연구 질 지표(EERQI)”라는 분과 발표는 유럽이 대학의 연구 질의 향상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EU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국제적인 프로젝트인 교육연구 지표개발에는 19개 유럽 내 기관이 참여해서 각 대학에서 생산한 교육 연구물에 대한 질적 평가 틀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순히 전통적인 인용분석이나 학술지 영향력(impact factor) 방식보다는 새로운 통계방법과 의미분석(sematic analysis)방법 개발을 통해 교육연구의 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대학에서의 학생평가 방식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스웨덴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볼로냐 선언이후 유럽의 대학들은 더욱 경쟁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과중심의 대학 체제로 변화되어 왔다.

학생평가 방식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이 시험이나 과제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하도록 유도하였다. 대학의 강의계획서에는 이전과 달리 기대되는 학습성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새로운 학점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인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학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생평가 방식의 도입만으로는 기대되는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립대학 간의 통합을 유도하듯이 유럽의 각 대학들도 정부로부터 통합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이런 통합의 목적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핀란드 연구팀에 따르면, 핀란드에서도 46개의 대학을 2020년까지 33개의 대학으로 줄여 대규모 통합대학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핀란드 교육부에서도 여러 건의 통합 작업을 지원하였으나 통합대상 대학 간의 상이한 지배 구조나 지역 간 거리 차로 인해 통합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미래의 학자를 어떻게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대학원 졸업 후의 각 학문 분야별로 신규학자의 진입이 자연스러운지, 대학 내에서 신규학자가 교수로서 경력 전환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향후에 각 신규학자 간의 학문적 교류를 유인할 수 있는 대학 간, 국가 간 연구교류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유럽의 대학들도 영국 타임지나 중국 상하이 자이퉁대의 세계적인 대학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세계수준의 대학에 얼마나 많은 유럽 대학들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흔적을 쉽게 살펴볼 수 있었다.

유럽학회가 주관해서 학술대회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교육학계에서 한 가지 기념할 사항은 올해 초 만들어진 세계교육학회(Worl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WERA)가 공식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연구에서 축적된 지식, 이론 향상, 연구의 엄격”이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는 점이다. 전세계 30여 개 나라를 대표하는 학회가 세계적인 학문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해 구성한 세계교육학회가 이번 유럽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최근 부각되는 세계 교육현안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육학회 회장과 본인이 대표로 참석해서 대입과 같은 주요 고등교육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문제를 각국의 대표들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가지로 5일동안 개최된 이번 유럽학술대회는 유럽이 현재 고민하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고 유럽이 통한된 이후 학생 및 교수 간 상호 교류와 협력에 유럽 학자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으며 민간이나 정부차원의 성과중심, 데이터중심, 증거중심의 정책요구에 학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 학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아 학술적으로 유럽의 여러 학자들과 소통하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

필 / 자 / 소 / 개

양정호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관심분야로는 교육사회학 및 교육정책연구다. 현재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번 유럽학술대회는 유럽이 현재 고민하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고 유럽이 통한된 이후 학생 및 교수간 상호 교류와 협력에 유럽학자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으며 민간이나 정부차원의 성과중심, 데이터중심, 증거중심의 정책요구에 학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